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공권력의 백색테러에 대하여 공식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세상은 많이 변했다. 4.3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청산 투쟁이 빛을 보고 일꾼이었던 현기영 선생은 문예진흥원장이 되고, 고희범 형은 한겨레신문사 사장이 되고 강창일 형은 국회의원이 되는 등 상전벽해가 일어났다.

한편으로 2000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도 통과되어 음지에 햇살이 돌아왔다. 각자에게 돌아온 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종이 쪽지 하나뿐이긴 해도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명예회복인 것이다. 반체제 불순세력이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된 것이다. 이 이름없는 이름은 바뀌어야 한다.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인데?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라 민주화 유공자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2004년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고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인기가요가 되었다. 결국엔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획득하는 4.15 총선이 있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의 퇴조가 있었다.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는 것이다. 벽돌 한 장 쌓는 기분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고 과거청산에 미약한 힘을 보태고 있다.

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에서 출발하여 과거사기본법 제정에 국보법 폐지에 벽돌 하나 보냈건만 유신 망령에 법 제정은 해를 넘기고 아직도 불투명하다. 2004년 12월 23일 그리고 12월 31일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될 듯싶던 법안이 공전되는 좌절을 다시 맛 본 것이다. 그러나 절망은 없다. 2005년 을사조약 100주년, 해방60주년 맞아 불만족스럽긴 해도 친일진상규명법이나 강제동원 진상규명법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과거사기본법도 통과될 것이고 한일 과거청산도 한 획을 그을 것이다. 독도 영유권 침해, 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강행, 강제동원 및 군위안부 문제 진실 은폐,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분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게 될 것이다.

젊음을 간직하고 찬이성, 더운 가슴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리라.



김태일_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74학번, 고려대학교평화연구소 연구원, 대통령저unk가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 정치학회 이사,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현)

새내기 학생들을 받아서 첫 학기를 보내고 있다. 수험생활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밍글스름하다. 그러나 아이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그늘이 있다. 다시 시작되는 경쟁, 암울한 취업 전망, 이런저런 걱정으로 벌써부터 어깨가 축 처진 아이들도 있다. 올해는 축제에도 흥이 적어 보인다.

마냥 발랄해야 할 아이들의 모습이 저러니 선생의 마음도 편할 리 없다. 이럴 때는 선생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씩씩하게 만들 수 있나? 학창 시절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우리의 대학 시절도 우울한 날이 더 많았다. 1974년, 환호를 지르며 들어간 대학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와 낭만이 아니라 끝도 알 수 없는 길고도 어두운 터널이었다. 유신 체제 하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거리에서' 배워야 했다. 학교는 사흘이 멀다하고 문을 닫았다. 휴교령과 함께 장갑차 빼앗겨 버린 교정을 길 건너 바라보며 우리는 하숙집 골방으로, 선술집 골목으로 돌아가 혀를 깨물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분하여 눈물을 삼켰다.

술을 아무리 먹어도 속이 답답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보아도 가슴에는 하나가 득 슬픔뿐이네” 요즈음 아이들은 40대 교수들이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부를 때 왜 그토록 노랫말에 흠뻑 취하게 되는지 알 턱이 없을 것이다. 미니스커트와 장발의 뒤를 쫓는 경찰의 호루라기는 차라리 아름다운 삽화였다. 꼬방동네 사람들, 공장의 순이, 어둠의 자식들. 농업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우리사회의 속과 같이 한바탕 뒤집어지던 그 고통의 물결 한 가운데서 우리는 법정 수업일수를 위태롭게 채우며 허겁지겁 대학을 다녔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힘을 준 선생님들이 있었다. 오랜 휴교 끝에 학교로 돌아온 날, 총장님의 개강 담화문이 붙었다. “작금의 젊은 대학생들이 보인 행동은 이유 있다.” “총장님, 우리들의 총장님. 우리는 그제야 마음놓고 평평 울 수 있었다. 선생님들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도록 가르치셨다. “너희들 마음은 내가 안다. 하지만 돌아가자. 밖으로 나가려면 나를 넘어 가라.” 땅바닥에 들어 누우신 노교수님은 기어코 우리의 발걸음을 강의실로 돌리게 하셨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많지 않았다. 우리는 목이 말랐다.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폐다고지>, <모택동사상> 우리는 강의실 바깥에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내가 만일 고려대학교 서클 룸에서 홍사단아카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일 고려대학교에서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일 고려대학교에서 “호랑이는 주러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기상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재미없고 또 초라했을 것인가? 나의 인생에서 안암동이 가장 중요한 시절이다.

나는 안암동에서 정말 좋은 ‘형’ 들을 만났다. 나는 요즈음도 ‘형’ 들을 만나면 ‘작아진다.’ 이제는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아직도 우리를 학습시키던 ‘형’ 들의 카리스마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불타던 눈빛과 열정, 확신에 찬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두려우면서도, 매 순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서도 우리는 왜 그 ‘형’ 들을 따라다녔는지 모른다. 벌벌 떨면서도 왜 ‘형’ 들의 말을 따라 유인물을 나르고 돌멩이를 날랐는지 모른다.

결국 나는 사고를 쳤다. 그리고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서대문구치소에서 1년 동안 콩밥을 먹고 군대에 ‘끌려갔다.’ 박정희는 ‘악질’ 이었다. 감옥에서 징역을 마치고 나온 나를 바로 군대에 끌고 갔다. 나는 군대에서 ‘고문관’ 이었다. 사격도 못하고 구보도 못하고 총검술도 못

했다. 군대에서도 나는 견디질 못했다. 2년을 버티다가 몸에 부상을 입고 의병제대를 했다. 나는 박정희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비가 오면 허리가 쭈시고 틈만 나면 허리를 기대야 하는 이 모든 육신의 불편함이 독재자 박정희가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제대 후 나는 방송국에서 일년 정도 일하다가 학교에 복학했다. 박정희가 자기 부하가 쓴 총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1980년 서울의 봄과 함께 나는 꿈에 부푼 대학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그 봄은 제4병하기와 제5병하기 사이에 찾아온 너무나 짧은 봄이었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의 발 아래 다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말았다.

다행히 대학을 졸업했으나 우리는 갈 데가 없었다. 나는 대학원을 택했다. 내가 학교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 1980년대는 질풍노도의 시대였다. 억압적 권력과 민주화의 물결이 설세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변혁의 장에서 ‘학문’ 은 어쩐지 왜소한 것 같았다. 생각이 큰 친구들은 일찌감치 팔을 걷고 노동현장과 농촌현장, 인권현장으로 들어갔다. 실천이 중요한 때였다.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최루탄과 돌멩이가 오가는 창문 너머에서, 책을 읽는다고 모여 앉은 우리는 항상 ‘현장부재의 콤플렉스’ 에 시달려야 했다. 그때도 선생님들은 “길게 보아라. 더 열심히 공부해야 세상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의 등을 쓸어 주셨다.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만큼 그럴수록 학업에 더 충실하라는 말씀이었다. 선생님들의 예상처럼 ‘이론적 실천’ 이 필요한 세월이 곧 찾아와 우리는 자격지심에서 벗어나 ‘일’ 을 얻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 이른바 ‘이론적 실천-학술운동’ 이라는 영역이 있었기에 대학원 생활과 시간강사 생활은 그나마 할 만했다. 나는 진보적 학술운동 영역에서 일했다. 한국정치연구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학술단체연합, 그리고 대구의 개혁적 학술운동기관인 대구사회연구소 등에서 일했다.

대학가의 파출부라고 불리는 긴 시간강사(비정규직 교수) 생활을 거쳐 나는 지금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선생이 되어 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옛날 우리에게 역사와 사회를 깨우쳐 주셨던 선생님들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그 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격려와 훈육을 다시 우리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풀이 죽어 있거나 방황하는 이 아이들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때와 지금은 암울함의 근원이나 고뇌의 내용도 다른 것 같다. 정말 고민이다. 그 시절의 선생님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리도 잘 헤아리셨을까?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일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모자라는 탓일까? 교수라고 하면서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학기가 끝나면 제일 먼저 그 시절, 우리의 큰 선생님들을 찾아 봐야겠다. 그리고 새내기를 기르면서 느끼는 74학번 교수의 고민을 말씀 드려야겠다. 좋은 선생의 길을 배워야겠다.

— 처음 생각대로 살고 싶다



설 혼_ 고려대 사학과 74 학번, 제16대 국회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장(화협) 공동의장, 중국북경대학교 아태연구원 교수 겸 객좌연구원(현)

1972년 10월17일, 유신쿠테타는 충격이었다. 나는 대학입시에 낙방하여 재수하던 중이었는데 하숙집 주인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전해주었다. “아니 평화시에 무슨 계엄령, 잘못 들으셨겠지요?” 반문했으나 시내에 탱크가 들어왔다는 말에 정말 ‘계엄령이 났나보다’ 했는데, 이른바 ‘10월 유신’ 이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드디어 박정화가 한국의 민주주의 간판을 뜯어내고 말았구나! 이런 불의한 짓이 어디 있나? 헌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다니. 민주주의는 지켜야 한다. 싸워야 한다. 이대로 주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싸우자,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자.

그날 얼마나 분했는지 친구 하숙집에 가서 술을 엉망으로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박정희 그냥 두면 안 된다. 민주주의를 말살한 자를 그냥 둘 수 없다. 모두 일어나 싸우자!” 비틀거리며 미아리고개를 올라 가던 기억이 새롭다.

고등학교 때 흥사단아카데미 활동을 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눈을 트웠다고나 할까.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정의로와야 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몸을 던져야 하며,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삶이 값진 것이라고 배웠던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다. 아카데미 활동은 거의